

민주 전대 D-2...김한길 완승이나 이해찬 대역전승이나

# 모바일 선거인단 표심에 달렸다

강기정·추미애 중위권 싸움도 치열할듯

민주통합당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전 당대회가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바일 선거인단의 표심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울산을 시작으로 5월 31일 전북 경선까지 지역별 순회 경선을 마감한 결과, 김한길 후보가 2263표로 1위, 이해찬 후보는 2053표로 2위를 차지했으며 차이는 210표에 불과하다.

9일 실시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경선은 전체 대의원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지만 전체적인 표심은 지역 순회 경선 결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한길 후보의 완승이나 이해찬 후보의 대역전승보다는 기존의 평평한 대결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 구성은 모바일 선거인단의 표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경선이 대의원 투표율 30%, 시민·당원 모바일 및 현장투표를 70%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의원의 경우, 당내 계파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크지만 당원이나 시민 선거인단의 표심은 국민

여론에 보다 가까운 현실이다. 민주당 전대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과 당원 유권자 수는 총 28만8387명. 이 가운데 시민 선거인단은 12만3286명, 당원 유권자는 16만5101명으로 집계됐다.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은 지난 1월 전대에 비해 45%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외에서는 시민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율은 60%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월 전대에 비해 흥행 요소가 낮기 때문이다. 김한길 후보 측에서는 대의원과 당원 및 시민 선거인단의 표심은 다르지 않다고, 대의원 투표에서의 상승세가 모바일 투표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한 한국노총에서 공개적으로 김 후보 지지 선언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반면, 이 후보 측에서는 모바일 투표에서의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 선거인단 신청 마감 직전, 이를 통한 8만명 정도의 신청자가 몰

린 것과 관련, 당내에서는 이 후보와 가까운 친노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가 대거 참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위권 후보의 싸움도 관심이다. 권역별 대의원 투표 결과 3위는 강기정(1333표), 4위는 추미애(1292표), 5위는 이상호(1039표), 6위는

## 한국노총, 김한길 지지 선언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노총 민주당 정책대의원 20여명은 간담회를 열어 당의 화합을 이끈 김한길 후보를 지지하며 노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김 후보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영득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대표로 김 후보를 선택하지만 이해찬 후보와 다른 모든 후보를 역시 존경하고 지지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야 한다”고 말했다.

1인2표제로 진행되는 만큼 나머지 한 표에 대해서는 조지별도 후보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한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4일 박지연 비상대

조정식(972표) 후보로, 3위와 6위의 차이가 360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걸(767표), 문용식(367표) 후보는 다소 뒤떨어져 있지만, 모바일 투표에서 지력을 보인다면 대역전극을 펼칠 수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책임위원장이 이영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이해찬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이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경선 판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대의원 공약에 주력하며 이른바 ‘김한길 역(逆) 대세론’을 굳히 계획이다.

반면 한국노총의 지지를 내심 기대했던 이 후보는 6일 마감되는 모바일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막판 경선 구도가 속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김한길·이해찬 두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박지연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강기정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 새누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한치의 양보 없다” 민주 “순국선열·민주열사 꿈꾸던 나라 만들자” 통합진보 “나라위해 헌신, 한순간도 잊지 않아”

#### 각당 현충일 추모 논평

여야 정치권은 현충일 57주년을 맞은 6일 순국선열과 유가족을 기리는 추모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토의 수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 보호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충일을 맞아 우리의 각오는 피로 지친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충(忠)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 모두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신경민 대변인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순국선열들과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이 지키고 만들고자했던 대한민국은 자유와 정의, 민주와 평화의 감동들이 넘치는 나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이

실현하고자 한 대한민국이 진정 무엇인지 깊이 자성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존중한다”면서 “빛나는 민주주의 역사는 나라를 위해 피 흘린 많은 분들의 헌신에 기반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높고 깊은 뜻을 다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11일 경선관리위 출범

정몽준·이재우·김문수 非차대선주자 강력 반발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2월 대선 첫 관문인 당내 후보경선 절차에 들어간다.

친박 위주인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은 비주류인 비박계 진영이 요구하는 경선준비위원회 없이 현행 경선 방식에 따라 경선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선준비위를 구성해 선 경선 방식 논의를 요구해

온 비박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경선을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병수 당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11일엔 경선관리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경선준비위에 대해) 당헌·당규 상 경선준비위는 없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선준비위를 꾸려 한 달 정도 했는데, 3월인가 만들었다. 시간적으

로 무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경선관리위는 실무기구인만큼 비박 진영으로부터 경선 방식 논의요구가 계속된다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관리위는 11~13명 규모로 경선일정·당내에서 경선방식으로 검토되는

당내에서 경선방식으로 검토되는

▲영남, 호남, 중부권 등 전국 4개 권역별 정책비전대회 개최 ▲권역별 순회경선 ▲선거인단 규모 확대조정 여부도 경선관리위가 정하게 된다.

경선관리위가 구성되고 대선주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하면 이들은 현행 당헌에 따라 삼일고문 자격으로 당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해 당무 전반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선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전 대표, 이재우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선준비위를 건너편 경선관리위 구성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조만간 회동을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정몽준 “통합진보 폭력사태의 본질은 정당 강령의 문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와 관련,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이 아닌 강령에 문제가 있고, 정당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민노당 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미동맹 해체 등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을 천명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10% 득표한 것은 충격적이다. 국민이 잘 몰라서 투표하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국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걱정된다”며 “그러나 국회 표결을 통한 제명절차는 맞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생각과 행동은 관련기관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주당은 경선할 것이고, 새누리당이 구경만 하면 국민의 관심

은 국민 참여 가능한 정당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처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분이 없다”며 박 전 비대위원장의 조속한 예비후보 등록을 촉구한 뒤 “완전국민참여 경선의 쟁점이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경매투자

- ▶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 ▶ 입찰반4명 / 이론반 24명
- ▶ 주 1회 / 3개월 완성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전남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